

원경이 예전 어릴 때에 이미 들으니 동국에 고운 최선생이 있는데 그 분은 도학 문장으로써 중국에 떨쳤다. 한말로 큰 도적을 찍는 것을 찍은 것을 찍는 것과 같이해서 이름이 이미 빛났다. 조서를 받들고 동국에 돌아옴으로부터 세상은 말세이고 정치는 썩어서 도량을 감추고 자취를 들어내지 않아 심히 기이하다. 뒤에 문묘에 배향 하여 윤성 예비지반에 계시니 의연히 문창후라 일컬으니 도가 더욱 높다.

대개 보 건데 이제 해골이 동굴과 발꿈치가 모난 여기저기 세상 사람들이 고운의 이름을 들은즉 상고의 신성이라 해서 서울의 머리요 몽매한 사람의 깨우침으로 존중하고 받들고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것을 고조 증조 같이한다. 원경이 스스로 뜻하건 데 낱기를 늦어서 비록 그 문에 친히 이르러서 부검승조 하여 그 곤예상경을 얻지는 못했으나 그의 아름다운 행실과 아름다운 자취는 상상으로 그 방불한 것을 다행히 여겼다. 밀 정정 자라서 지식이 나서 모든 부형과 놀 때에 가슴을 열람 해본즉 고운선생 이란 분은 우리경주 최씨의 시조이시다. 우리가 후손 된것을 자부한다. 슬프다 세상에 별렬을 높이는 것을 숭상한다.

당의 이조기 기록에는 정이최노 사문이 천하의 갑족으로 일컬었고 우리나라도 또한 안정박이김최 육성으로 큰집이라 했으니 최씨가 세상에 현벌 된 것은 물론 동방 우리나라가 곧 중국도 이와 같다 무릇 별렬을 이룬 자는 대대로 존관 귀작을 이름이 아니라 의조 화식 태창에도 도가 크고 덕이 높은 사람이 조기 창법하면 홀연히 천하의 망족으로 일컬음이 된다 그런고로 후경 웅장 지한이 이미 그 주인이 없으면서 오직 혼인을 최 노 씨에게 구하는 것을 스스로 존중함을 이선이 역요에 기록해 올려서 높이 드러냈다 남에게 서찰을 주는데 오직 농서로만 일컬고 이름도 쓰지 아니 하여 진실로 작위가 존망보다 못하다.

슬프다 우리나라의 화주 정족이 또한 수십백가지가 되나 그러나 그 선대에 능함이 있어서 이름이 중화에 나타나고 도가 무릇 못 성인과 같고 관면 우 일세하고 모범우 백대를 우리 문창후 같은 분이 있느냐 이로부터 보면 또 육성의 갑족이 된것도 형의가 없다. 슬프다 신라말 고려초에서 크게 어지러워 여러 번 병화가 있는 나머지 금계의 보배 기록과 천황의 옥첩이 다 나는 먼지와 탄재가 되었으니 고운의 현상이 우리 최씨에게 들어난 것은 보첩에 꿰여 한것 뿐이고 없어 졌으니 어찌 크게 한석 하지 아니하라. 고운아래 팔세에 이르러 비로서 판도판서 휘애()자 이니 이것이 씨족가의 말이라 그 말이 가히 밀을만 하다. 고려사 문종 이십팔년에 선(善)자 지(之)자로 고운의 오대손이라 하였다. 혹은 판서공의 선대라 했으니 이제 감히 급거히 들어서 옳다고 하는 자는 두렵건 데 송도에 망녕되어 분앙을 인정하는 것과 같으니 슬프다 주역 동인 지상에 가로되 군자는 유족으로서 변물이라 했으니 보첩에 비로서 한 것이다 무릇 보첩이 세상 가르침에 큰 도움이 있다.

보첩이 불명하면 혹 소(疎)자 변하여 속(束)자가 되고 백성민이 각시씨가 되어 왕씨의 하나는 원성과 의춘에 난 것을 알지 못하고 유씨의 하나는 원해와 봉춘의 폐단이 있으니 가히 삼가 하지 않은가 원경이 부상 편집하는데 유의하여 씨 한집 보를 이루는데 오래 되었으나 돌아 보건데 문헌이 부족하고 견문이 심협하여 비록 탐로고증이 있으나 오히려 완보를 이루지 못하였더니 마침 일가 사람 천우보가 관서로부터 와서 보첩으로서 말을 하는데 널리 씨족원류를 상고 해서 동국사가 여지승람 등 문으로 수집 여러 성씨의 찬록 자 합하여 한보가 되었다 고운으로 부터 아래로 지금까지 이르도록 여러 백년간 소목의 종지 지본이 아주 뚜렷하여 문란하지 아니하여 나무를 새겨서 간행하여 그 전한 것을 오래게 하니 이것이 가히 천우보의 공적이 가히 민물 하지 않는다.

슬프다 오직 우리 문창후는 문학으로서 금세에 조호를 크게 올린 것을 정필재가 먼저 지었다 이것은 문창후의 도가 한나라에 행한 것이요 또 문창후가 여덟 번 전해서 판서공이 있어서 관현 명저하니 빛나고 빛났다 또 여덟 번 전해서 총재공이 있어서 아주 문아로 성주를 도우고 그아들 정자공이 또한 조세에 문과해서 극소선미 이로부터 이후로 비록 떨어져 백성이 되었으나 떨어져 향사에 처한채 대개가 총민 해서 문예가 있으니 이것은 문창후의 가르침이 한집에 이뤄진 것이 아니라 무릇 도는 한나라에 행하고 교가 한집에 이루어 진자 아래 이른바 상고신성 수서물유 군웅자가 아니고 그누가 능하리요

슬프다 금인 이 날로 친구를 모아 놓고 기쁘게 담소 음식 연회로 즐기면서 종족에는 화목치 못하여 연기 결사하고 비단옷과 좋은 음식으로 하면서 친척에는 떨어진 옷에 못먹는 것 보면서도 구휼을 아니하고 대관 귀빈을 보면 아주 공경하는 모습이며 길에 가다 일가 어른을 만나면 혹 차에서 내리지도 않으니 이것이 보학을 폐지하여 친친의 의를 알지 못하는 연고라 이제는 우리족보 짓는 것이 사람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조상의 마음으로 마음을 합하여 외로운 자를 도와주고 어려운 자를 돌봐주고 경사엔 하례하고 상사에는 위문하여 비록 복이 다하여도 정을 두껍게 하여 부침이 적드래도 의가 두꺼워 저서 최수의 삼세동거와 이방의 백식구가 함께 사는 것과 같이 한족 어찌 선열의 빛이 있고 풍속화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슬프다 족보가 이루고 고운에서 아래로 판서공 중간에 수대는 마침 능히 자세히 알지를 못하니 이름자와 관작을 아직껏 꿰하고 후인을 기다리니 이것이 우리 무리에 언제나 경영해서 감히 조금이라도 놀을 자가 아니라 뒷사람은 능히 널리 상고하여 만약 얼음이 있는 즉 어찌 영화스럽고 다행이 아니겠는가. 그 명휘와 환향련과 몇 살 어느 성씨에 배워 묘의 소재 기일은 함께 족보에 기재 됐는고로 여기엔 덮 불이지를 않는다

일찍이 이가장이 예산지에 가로되 예산 최섬은 부에 백문이요 조에 아무요 증조에 모 원조에 윤순인데 고운의 후인이라 했으니 이것은 곧 우리의 동종은 되어도 족보에 입보치 못함은 증거가 없는지라.

가야산은 곧 고운 은거 종로 하던 땅이라 그유로(遺老)를 찾아서 그 끼친 일과 일적을 다 들어서 그런뒤에 표연히 척최고봉하여 견 고운의 유연이 영수를 봐서 우리조상의 청기유담한 기상을 면상하려 하였으나 힘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이것은 원경의 죄라 또 원경의 죄라

송정 甲申後 91년 甲寅 맹추 하완 후손 전군수 원경 경서

서기 1981년 신유 정월 후손 병 응 역해

1981. 9. 15